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및 전망

지난 11월 제2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40%, 세계 GDP의 57.4%를 차지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 지역의 경제통합은 향후 역내 교역 증대 및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AP의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국가들간에 진행 중인 RCEP, TPP 등 메가 FTA가 타결될 경우 FTAAP 추진의 촉매제가 되어 추진 속도 및 역내 자유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동향

- 금년 제22차 APEC 정상회의(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¹⁾’을 채택
 - FTAAP 창설은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그동안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중장기 목표로 FTAAP를 추진해 왔음
-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FTAAP 실현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2016년 말까지 결과물을 도출기로 함
 - 공동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잠재적인 경제적·사회적 득실, ②FTAAP 실현을 위한 경로 분석, ③역내 발효 중인 RTA/FTA의 평가, ④스파게티볼 효과²⁾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⑤무역 및 투자 장벽 발굴 등임
 - 이와 동시에 역내 발효 또는 타결된 RTA 및 FTA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을 지속기로 함

1) 2014 Leaders' Declaration Annex A - 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참조

2) 양자간·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여러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데서 비롯되는 복잡성을 일컫는 용어임

- 또한, 국경선(at the border)에서의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가속화, 국경선 너머(behind the border)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초국경(across the border) 지역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글로벌 밸류 체인 등의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발전 시켜나가기로 함

<APEC 정상회의의 FTAAP 관련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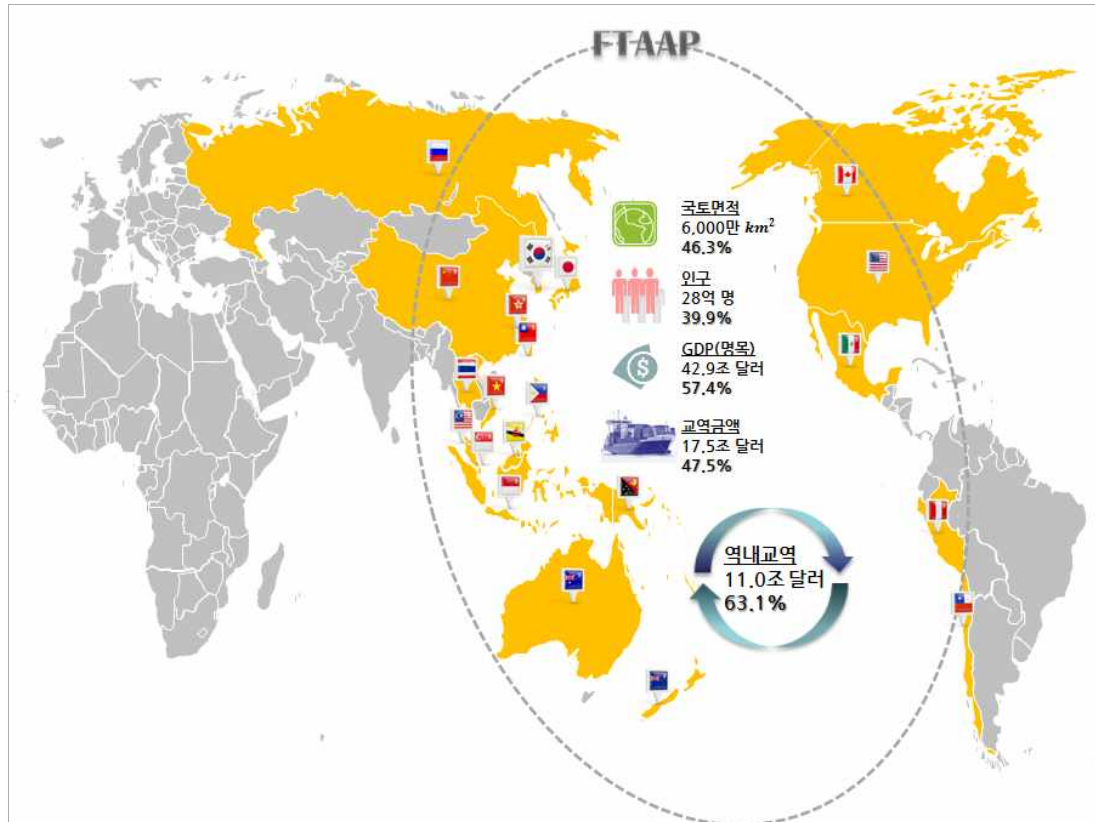
APEC정상회의	FTAAP 관련 주요 성과
제12차 (‘04년, 칠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FTAAP 창설 최초 제안 *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선진 회원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
제14차 (‘06, 베트남)	정상회의시 FTAAP가 아태지역의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 FTAAP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 연구에 착수하도록 함
제15차 (‘07, 호주)	「역내 경제통합 강화 보고서(Strengthe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를 보고 받고 장기적인 목표로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촉진의 구체적 방안 모색
제18차 (‘10, 일본)	APEC이 FTAAP의 인큐베이터로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하며, 현재 논의 중인 ASEAN+3, ASEAN+6, TPP등이 FTAAP의 추진 경로(Pathway to FTAAP)로 제시됨
제20차 (‘12, 러시아)	FTAAP가 지역경제통합의 주요 기제(instrument)임을 재차 확인, APEC이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FTAAP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제22차 (‘14,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채택 2016년까지 FTAAP 실현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자료: APEC 홈페이지 참조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위상

- 향후 FTAAP에 포함될 수 있는 APEC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21개국으로 전 세계 GDP의 57.4%, 세계 인구의 39.9%를 차지
-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임
 - APEC 회원국 21개국의 국토는 6천만 평방킬로미터로 전 세계 국토의 46.3%, 인구는 2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9.9%를 차지
 -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이 포함되어 있어 21개국의 GDP(명목) 규모는 42.9조 달러(2013년)이며, 전 세계 GDP 중 57.4%에 달함
 - 21개국의 對세계 교역금액은 2013년 기준 17.5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교역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21개국간 역내 교역비중은 63.1%(11.0조 달러)임

<APEC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



주1: 모든 통계는 2013년 기준이며, 교역금액은 대만 및 파푸아뉴기니 미포함

주2: 지표별 %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World Bank, IMF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경제규모 및 소득격차, 문화적·역사적 동질성 부족 등으로 제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
 - APEC 21개국의 1인당 GDP(명목) 범위가 1,900 달러~5만 달러 이상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크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미주 국가들간 문화적·역사적 배경이 매우 이질적임
- 한편,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FTA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RCEP, TPP 등 메가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현재 APEC 21개국 사이에 발효 중인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FTA 협정은 약 90여개에 달하며, 최근 한·중, 한·뉴질랜드, 중·호주 FTA 협상이 추가적으로 타결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협정이며, 금년 말까지 6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
 - 2013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협상의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협정 체결시 역내 교역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 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RCEP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모두 FTA 발효 또는 체결한 상황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미주 및 아시아 대륙 12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
 - 미국과 일본이 민감 농산물 및 자동차 개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경우 내년 3~4월경에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12월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여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유지하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 TPP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
 - TPP는 RCEP과는 달리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시 향후 FTAAP의 방향과 개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가시화됨
 - 그러나 아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단계에 불과하며 미·중 관계, 역내 격차, 문화적·역사적 이질성 등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직 FTAAP의 실현 가능성 및 시기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현재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RCEP 및 TPP와 같은 메가 FTA의 타결 및 향후 성과가 FTAAP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경제규모, 인구, 무역 분야에서 위상이 높고 우리 무역도 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도적 통합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비중이 63.1%에 달하는 매우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시장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APEC 20개국에 대한 교역금액은 7,091억 달러로 對세계 교역 중 65.9%를 차지
 -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향후 FTAAP의 실현은 역내 교역 증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등)의 연구결과³⁾에 따르면, TPP, RCEP, FTAAP 중 FTAAP가 역내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한국도 FTAAP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 2025년 베이스라인(무역협정이 없을 경우) 대비 한국의 GDP 증가율(%): TPP(한국 포함시) 2.2, RCEP 3.9, FTAAP 6.1
- 또한 APEC 21개국간 90여개의 양자간, 복수국간 FTA가 발효되고 있어 FTAAP를 통해 통일원산지 및 누적원산지 규정을 확립시킬 경우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FTAAP 실현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RCEP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TPP 참여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을 정립해야할 것임

3)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2014. 5.19),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참고: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2013)

회원국명	국토면적 (천 km²)	인구 (백만 명)	명목 GDP (\$십억)	1인당 GDP (달러)	수출 (\$십억)	수입 (\$십억)	역내교역 비중(%)
(1) 동북아	-						
한국	97.1	50.2	1,304.5	25,975	560	516	63.2
일본	364.5	127.3	4,898.5	38,468	715	832	66.6
중국	9,327.5	1360.8	9,469.1	6,959	2,210	1,947	55.4
홍콩	1.0	7.2	274.0	37,955	459	524	71.7
대만	36.2	23.4	489.1	20,925	-	-	
러시아	16,376.9	143.7	2,096.8	14,591	527	315	24.0
(2) ASEAN	-						
싱가포르	0.7	5.4	297.9	55,183	412	373	66.5
태국	510.9	68.2	387.3	5,676	225	250	64.1
말레이시아	328.6	29.9	313.2	10,457	228	206	72.4
인도네시아	1,811.6	248.0	870.3	3,510	183	187	71.5
필리핀	298.2	97.5	272.1	2,791	54	68	74.7
브루나이	5.3	0.4	16.1	39,659	10	8	85.4
베트남	310.1	89.7	170.6	1,902	127	129	72.0
(3) 대양주	-						
호주	7,682.3	23.3	1,505.9	64,578	254	256	74.0
뉴질랜드	263.3	4.5	181.6	40,516	40	40	71.0
파푸아뉴기니	452.9	7.3	15.4	2,098	-	-	
(4) 북미	-						
미국	9,147.4	316.4	16,768.1	53,001	1,580	2,268	62.1
캐나다	9,093.5	35.1	1,826.8	52,037	458	508	82.1
멕시코	1,944.0	118.4	1,260.9	10,650	380	419	83.3
(5) 남미	-						
칠레	743.5	17.6	277.0	15,776	77	79	59.9
페루	1,280.0	30.9	202.4	6,541	42	48	58.8
APEC 전체(A)	60,039.3	2,805.3	42,897.4		8,540	8,974	63.1
세계 전체(B)	129,709.9	7,055.9	74,699.3		18,263	18,627	
비중(A/B: %)	46.3	39.9	57.4		46.8	48.2	

주 : 역내 교역비중은 대만 및 파푸아뉴기니는 미포함

자료: IMF,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KIEP)' 참조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6000-5175, hjje76@kita.net)